

순정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루가 18, 14b)

연중 제30주일

제1독서 : 집회 35, 12-14, 16-18

제2독서 : 2티모 4, 6-8, 16-18

복음 : 루가 18, 9-14

강론

겸손한 삶

박병준 신부 / 동산 천주교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겸손은 국어사전에는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태도”, 가톨릭 대사전에는 “자신을 낮추되 비굴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인식과 그 태도”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바리사이파 사람보다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만 살아온 세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역설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만 대하고 보니 그들을 나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들처럼 열심히 신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즈음 우리 본당 신자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분들, 주일미사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평일미사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참여하고, 사목회, 레지오, 빈첸시오회, 청년회, 교리교사 등 활동을 통하여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모범적인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분들중에 상당수가 대단히 독선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본당이나 교구에서 하는 일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고, 만일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노발대발 화를 내며 빠져버리는 분들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로부터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람로부터 손가락질당하고, 공동체에서도 골치거리로써 교회의 일치를 와해시키는 데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면서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나는 해야 할 바를 했을 따름입니다”라는 겸손된 삶에 있지 않을까요?

소리

비자금과 정권의 도덕성

5, 6공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비자금문제가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6공의 4천억원 비자금설을 흘렸을 때부터 심상찮은 조짐이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22일 국회에서 제기된 3백억원의 비자금 출처가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23일에는 그 액수가 485억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전국민은 경악과 서글픔, 배신감을 한꺼번에 느껴야 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통치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조성한 검은 돈인 비자금문제는 5·18문제와 함께 권력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이다. 물론 이번에 밝혀진 액수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국은 진상규명 의지를 가지고 비자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조성 경위까지도 낱알이 파헤쳐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줘야 한다.

4천억원의 비자금설이 나왔을 때 사실상 수사를 포기하고 범죄행위를 정치적으로 흥정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나, 또 비자금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애써 문제삼지 않으려했던 정부, 여당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명백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6공의 비호 아래 탄생한 현 문민정부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국민들은, 정권의 도덕성을 걸고라도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기를 원하고 있다.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62

“나는 하느님, 네 아버지를 보살피던 하느님이다”
(창세 46, 1-47, 12)

46장에서는 끊어졌던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면서 요셉의 이야기와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야곱 집안의 후손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보아 족보에 관심이 많은 사제계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을 떠나 에집트로 향한다. 가던도중 브엘세바에 이르자 야곱은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께 제사를 바친다. 아마 그는 정들었던 선조의 땅 가나안을 떠나 낯선 땅 에집트로 가는 것이 불안해서 하느님을 찾은 것 같다. 한동안 제사와 같은 주제는 요셉 설화에서 잊혀져 있었다. 그 날 밤 환상중에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안심시켜 주시며, 그가 에집트로 이주해야 하는 까닭을 가르쳐 주신다. 우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라고 소개하신다. 곧 선친 이사악을 돌보아 주시던 하느님, 조상 때부터 언제나 성실하고, 변함없이 은총과 자비를 내리시는 하느님이심을, 미지의 세계에 대해 불안해 하는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에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하신다.

하느님은 약속된 땅과 후손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성조들과 함께, 순례길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된 땅은 에집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 야곱을 다시 불러 내올 것이라고 다짐하신다. 하느님의 약속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야곱에게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 줄 것이다”고 말한다. 실제로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그를 선조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 안장할 것이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안심하고, 힘든 여행길을 재촉하는데, 야곱에게 딸린 직계 자손으로 에집트에 건너간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온 며느리들을 빼고 도합 66명으로 되어 있다.

족보와 숫자에 대한 기록이 끝나면 다시 에집트 여행기가 계속되는데,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어, 자신의 일행이 에집트 땅에 들어와 있음을 알리고, 요셉은 반대로 야곱을 만나러 고센 지방으로 올라 간다. 마침내 요셉과 야곱은 서로 목을 열싸안



에집트로 이주하는 야곱일가

고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고, 야곱은 그 기쁨을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며 요셉에게 말한다.

가족들의 도착과 더불어 요셉의 머리는 바쁘게 돌아간다. 요셉은 늙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비옥한 나일 강 동부 삼각지대인 고센 지방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짠다. 그 핵심 계획은 가족들의 생업이 조상 때부터 목축업이라는 것을 파라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의 계획대로 움직여 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 지방에서 정착하게 하던 어떻게든 제안까지 한다. 또 형제들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왕실의 가축지기의 직책을 맡기면 좋겠다는 제안도 요셉에게 한다. 정착문제가 해결되자 요셉은 파라오와 아버지를 상면시킨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떠돌이 신세’로 소개한다. 그러나 남보기에 떠돌이 신세지 야곱의 생애는 하느님과 함께 약속과 축복의 미래를 향해 걷는 순례였다.

이 이야기에는 또다시 구약성서의 중심 주제인 ‘순례’가 등장한다. 야곱은 정들어 살던 가나안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 순례는 인간이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정착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언제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이삭손돌침대「파워스톤」

수백방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데레사)
전북대리점

☎ (0652)75-9824, 77-6587
호출기 012-687-8842
휴대폰 011-651-7124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젼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 · 이해경(글라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덕신지업사

· 최신 벽지 및 바닥재 열가판매
· 정밀시공 ·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원요안(요 한)
서문숙(엘리사벳)

군산시 죽성동 29-9
☎ (0654)42-3736, 445-3736

잡간

8. 첫째 교사로서의 부모

가정교육, 즉 가정에서의 참된 인간 교육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자녀가 최초로 체험하는 학교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편리해진 오늘날 각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실상은 어떠한가?

허리띠 졸라매고 어렵게 살던 지난날에는 오늘날처럼 자녀 교육 문제를 두고 이토록 심한 몸살을 앓지 않았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부모를 비롯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한 교육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가족 제도의 가정에서는 기본예절과 생활습관이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화된 오늘의 우리 가정은 그러한 교육적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게 사실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 땅의 부모들을 가리켜 "성실한 바보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으면서 참다운 인간 교육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꼬집은 말이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만 온갖 정성을 쏟을 뿐 가정교육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일류추구와 입신양면이라는 이 땅의 전반적인 교육풍토만을 탓할 게 아니다.

어떤 교육이든 그 근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의 부모들이 일차적인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부모가 첫 교육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양친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양친은 자녀의 첫째이며, 주된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그리스도교적 교육 선언 3항)

교사로서의 부모가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대화생활이다. 그 동안 익숙하지 않던 자녀와의 대화는 마음먹는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부모가 먼저 시간을 내어 자녀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나 부모의 입장만 앞세운다면 자녀와의 대화의 길은 기대할 수 없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교구 소식

- ※ 축! 견진 : 11월 5일(일) 오전10시 도통동 성당
- 1. 천호 피정 안내 : 10월31일(화) 주제-죽음이라는 선물, 강사-권이복 신부
- 2. 구역(반)장 연수 : 10월31일(화)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동·서전주 지구
11월1일(수) 오전10시 숲정이 성당, 남·북전주 지구. 11월2일(목) 오전10시 월명동 성당, 군산지구. 11월3일(금) 오전10시 나바위 성당, 이·익지구
- 3. 성직자 모자 위령의날 미사 : 11월2일(목) 오전10시30분, 주례-이병호 주교
- 4. 꾸르실료 총회 : 11월4~5일 천호 피정의 집
- 5. 전주교구 사제 부모 모임 : 10월31일(화) 오후2시 전동성당 회비-10,000원
- 6. 세계인권사진전 : 10월31일~11월3일 가톨릭센터 1층
- ※ 기약할 사제 : 11월 1일 주재용(바오로) 신부 19주기

요심이 (1156) 김병오



김장 걱정 하세요? 3만원만 쓰세요. 정한 날 정한 시간, 돼까지 배달해드립니다!

고냉지 배추, 순창산 양근 고추, 심적산 지하 115m 알반수로 담습니다. · 품목: 배추김치, 알라리, 파, 깍두기, 동치미 · 주문처: 순창성당 영농조합 (0674)53-8040~1 성모회 52-1004 가톨릭농민회 부설 동산매장 (0652)212-7442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성소 피정
· 주제: "길"
· 때: 11월18일~19일 오후 5시
· 장소: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본원
· 신청: 11월 12일까지
· 전화: 부산 본원(051)753-1131~4 호성동 수녀원 244-0094

이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 이브생로랑, 위크엔드
· 버킹엄, 아스트라, 빌트모아
· 런던포그, 크레센도, 포앤모아
정수전(시문)·강숙기(짓다)
코아백화점 4층
☎ 86-2884, 80-1404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악기 전문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86-1181, 83-5332
호출기 015-670-1651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온형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역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무회장 김동주

- ◎ 연중 제30주일입니다.
- ◎ 날마다 그날 성서구절을 한 번 더 읽으시다!
- 1. 사목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지하 교리실
* 사목회 회장단 고문, 감사, 각 분과 부장, 차장, 제단제장, 반회장님께서는 필히 참석바람.
- 2. 대건회장 개편: 김태영(실비노)→최철영(아우구스티노)
중노 4반 반회장 개편: 이혜숙(마리아 고리띠)→이기화(실비아) 수고하시겠습니다.
- 3. 성심회 단합대회: 30일 전 8시
- 4. 구역(반)장 연수회: 전 10시, 숲정이 성당
- 5. 반회장 단합대회: 2일 전 8시30분(저녁미사 없고 새벽미사)
- 6. 병자 봉성체: 3일 오전중, 사무실에 신청
- 7. 사목회 상임: 3일 저녁미사 후
- 8. 사무원 모집:
자격-영세한 지 3년 이상 여, 고졸이상, 컴퓨터 유행경자 우대
제출서류-이력서, 세례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각 1통
접수마감-11월5일까지
- 9.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1일 어머니미사 후
②울프레아(5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076,690원 □ 교무금: 931,000원

* 서화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무회장 민범부

1. 금주 모임: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유이방
자모회-11월2일(목) 레지오 회합 후,
장소-회합실
2. 차주 모임: 꾸리아-11월5일(일) 오후 2시, 성당
사목회-11월7일(화) 오후 8시30분, 사무실
성심회-11월11일(수) 오전 10시30분, 회합실
울프레아-11월12일(목) 오후 7시30분, 회합실
3. 피정 안내: 10월29일(일) 10시~17시
· 강사-범석규 신부 · 참가비-1,000원
· 대상-사목회임원, 단제장, 구역장, 레지오단장,
부단장
· 준비물-묵주, 복음서가
4. 소록도 방문 안내: 11월9일(목)
· 출발장소-성당(시간: 6시50분 출발)
· 준비물-묵주, 성가책, 미사도구, 레지오 수첩, 도시락, 잔
· 소록도 나한차 교류를 위해 라면과 휴지 및 과자 등을 기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 미사 안내: 11월1일(수) 미사는 새벽 미사입니다.
6. 성가 연습: 매주 토요일 10시30분, 장소-성당,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7. 청소 안내: 금주-정도의 동정녀
차주-사랑하올 어머니

* 복자

사 제 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짐승현
수녀원 86-3454 사무회장 황길평

- ◎ 11월의 위령성월
- 1. 사목회 정기 총회(임원선출): 29일(오늘) 공식미사 후(계시관
참조)
- 2. 구역반장 연수회: 11월 1일(수) 숲정이 성당, 10시
- 3. 각 분과 96년 예산안 제출: 11월 5일(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시오.
- 4.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목) 오전 10시 반, 오후 7시 반
- 5. 성체 강복: 11월 2일(목) 저녁미사 후
- 6. 미사 시간 변경: 11월 5일부터 저녁미사 7시 반→7시로
- 7. 중·고 성가 경연대회 입상: 룻상(4등)을 받았습니다. 축하합
니다.
- 8. 모임: 성우회, 대건회-5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사목회-5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9. 직원 소풍: 30일(월)
- ※ 축! 결혼: 29일 12시 신랑-이승만(아오스당), 신부-김수경
11월5일 12시 신랑-낙종성(도밍고) 신부-안미숙(베로니카)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지혜롭 부부
봉헌-강주호 가족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이상은 부부
봉헌-강명진 가족
성당 청소: 11월4일(토) 황금 공진Pr. 성모 성년Pr.
- 지난주 봉헌금: 589,250원 □ 교무금: 1,331,000원
- 전교주일 2차헌금: 306,500원
- 페루 선교사 2차헌금: 240,000원 전달

* 상 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실
수녀원 85-6653 사무회장 양주태

- ◎ 오늘은 연중 제30주일-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 ◎ 11월은 위령성월-연령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묵상하자.
- ◎ 축! 영명: 한 시몬 주임 신부님, 축하식-공식미사 후
- 1.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다음주일
②성시간 및 성체조배-2일(목) 저녁미사 후
- 2. 11월 사목회 확대회의: 4일(토) 저녁 8시, 임원, 감사 및 구역장
전원
- 3. 유아 세례: 오늘 9시 성당
- 4. 특별강론: 김희태 신부님(페루 선교사) 5일(일) 10시 공식미사
중
- 5. 축! 혼인: 신랑-김진우, 신부-남미경(베로니카) 4일(토) 오
후 5시.
※ 결혼예식-12일, 광주(남현준씨 장녀)
- 6. 축! 혼인: 신랑-박종욱(베드로) 신부-홍정희(헬레나)
5일(일) 12시, 성당
- 7. 성전보수비 봉헌: 이기봉, 양주태, 최경림(20만원) 강재혁, 안정
기, 익명(10만원) 최원규, 차만순, 안 아가다, 김병열(5만원) 강
순복, 장진수, 장복순(3만원) 박복동, 김종욱(2만원) 개-1백2십
3만원, 누계-6백3십1만3천원.
- 8. 성당 청소: 금주-신비로운 장미Pr.(4일, 토)
차주-모든 성인의 모후Pr.(11일, 토)
- 9.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한동욱 ②김금자
봉헌-최경림 가정
- 지난주 봉헌금: 492,600원 □ 교무금: 532,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 불 회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동 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무회장 주 환

- ◎ "축" 사목회 정기총회 임원 개편: 회장-주 환(다두) 부회장-
김동욱(마테오) 백홍자(안나) 총무-전병규(마티아) 선교부장-
김형태(올리아노) 교육부장-방승용(마티아) 전례부장-최
중만(요한) 청소년부장-이철수(바오로) 홍보부장-소윤섭(프
란치스코) 사회복지부장-원수관(야고버) 재정부장-소영준
(다두) 여성부장-유향자(베로니카) 구역부장-김귀남(안나)
애령부장-배양길(마리노) 감사-노병섭(프란치스코) 김원준
(야고버) 수고하시겠습니다. 전 사목회 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공식미사 후 이·취임식)
- 1. 금주: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애덕의 모후(후 3시)
③초동부 성지순례-오전 9시30분~오후 5시(도시락 지참)
장소-천호성지, 대상-유치부~6학년
④요셉회 성지순례: 장소-충남 진산(권상연, 윤지충 생가)(성
지순례 관계로 10월29일과 11월5일은 농산물 식매상이 쉽니다)
- 2. 성가경회: 1일(전 11시) 3. 성체강복 및 조배: 2일(전 10시)
- 4. 성모성심회: 2일(후 3시) 5. 병자 봉성체: 3일(후 2시)
- 6. 제4차 구역(반)장 연수회: 11월1일(수) 오전 10시, 숲정이 성
당
- 7. 레지오 마리에 아의 단원 교육: 11월5일(일요일), 장소-남양
성지, 출발-7시30분(시간 엄수)
- 8. 분당 행사 관계로 11월 울프레아는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2,216,00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사무실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무회장 김삼근

- ◎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루가 18, 14)
- ◎ 위령성월(11월)에 1일~8일까지 묘지 방문하여 연도하면 연옥
영혼들에게 드리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구역 반 회장 연수: 1일 10시 숲정이 성당, 분당 9시30분 출발,
금년 마지막 연수임(불참자는 사유서 미리 제출).
- 2.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1일 전 11시, 저녁 7시30분
- 3. 위령의 날 미사: 2일 ①새벽 5:30 ②저녁 7:30 ③전 10:30
-성당 묘지(소리개제)-미사예물은 사무실에 접수, 분당 10시
출발
- 4. 여성 추녀 대회: 31일 9시30분 점호 10시 출발-동산면 온천골
- 5. 유아 세례: 4일 후 3시(사무실에 미리 신청)
- 6. 성체 강복 및 성시간: 2일 저녁 7시30분
- 7. 예비자 제2반 임교식: 1일 저녁 7시30분
- 8. 혈제 기도회: 30일 저녁 8시30분, 6구역 김재봉(마르첼로)역
204동 1206호
- 9. 병자 방문: 3일 전 9시
- 10. 회의: 평화의 여왕Cu, -5일 후 2시30분
성지회-5일 공식미사 후
- 11. 축! 영명(3일): 곧 실비아 수녀님 축하드립니다. 영육간의 건
강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를...